

규장각 소장 『맹자』 판본 연구

– 정조~고종대 書目에서의 계승을 중심으로 –

합영대 *

1. 문제제기
2. 原奎章閣 書目에서의 『맹자』 판본
3. 규장각 주변 궁궐 각사서목의 『맹자』 판본
4. 고종대 集玉齋의 『맹자』 판본
5. 史庫의 『맹자』 판본
6. 남는 문제

1. 문제제기

정조가 즉위 당년인 1776년 9월 25일에 규장각을 중건한 이래 역사의 격랑을 거쳐 오면서 규장각의 도서는 적지 않은 부침을 거듭했다.¹⁾ 규장각을 설치하고 왕성하게 서적의 간행사업을 진행한 정조시대와 같은 治世에는 국가적 과업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어 더할 나위 없는 요긴한 치세의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亂世에는 창고에 쌓여 일부 도서는 계륵처럼 취급되었고, 재물처럼 관리되기도 했다.

이렇게 상이한 각 시대의 용성과 부침을 지나면서 규장각 도서의 수집과 이산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규장각의 다양한 書目이다. 그러므로 이 書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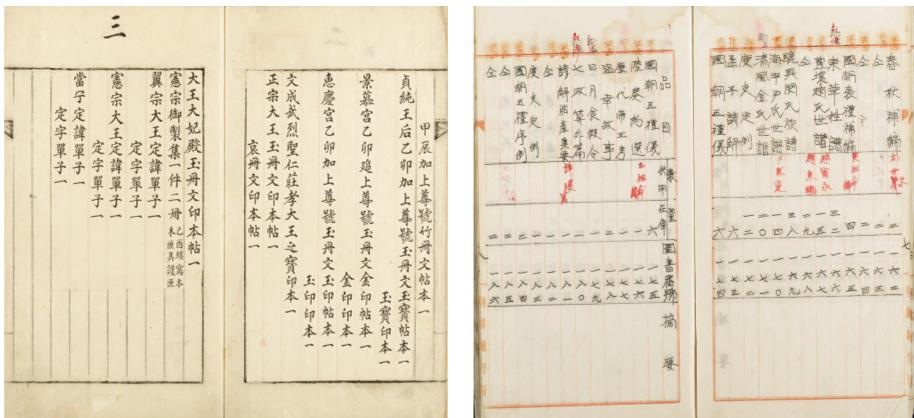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규장각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한영우, 2008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김문식 외, 2009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조.

들은 규장각 도서의 형성과 전개를 묵묵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그 始發이 되는 정조 연간에서부터 개항기는 물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규장각 서적과 관련하여 작성된 140여종의 서목이 전해진다. 이들 서목을 잘 활용한다면 규장각 도서의 형성에 대하여 그 일말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서목의 기록을 따라 규장각 도서의 형성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서목 가운데는 단지 176종의 서적 정보만을 전하는 『書香閣奉安總目』(奎7924)과 같은 소규모의 서목도 있지만 15000종의 서적 정보를 담고 있는 『朝鮮圖書總目錄』(奎26778)과 같은 방대한 내용을 수록한 서목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그러한 서목의 서적을 모두 검토하여 규장각 도서의 형성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요긴한 한 단면을 예리하게 적출하여 그 전체상을 추측해 보는 것이 해볼 만한 방법일 것이다. 전체의 서적 하나하나를 직접 다 살필 수 없다면, 결국 전체의 圖書名이 수록된 書目을 통해 규장각도서의 형성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적실한 견본을 찾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그림 1〉 書香閣奉安御書總目(奎7924)

〈그림 2〉 朝鮮圖書總目錄(奎26778)

그렇다면 어떤 도서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일까? 무엇보다 현재 규장

각 도서로 현전하는 규모가 볼만 해야 한다. 편입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풍부하게 보여주려면 일단 도서의 種數 자체가 적지 않게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그 종류가 많으면 검토 과정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에 부합하는 서적으로 경서류 도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경서류는 간행되는 서적이 결코 많지 않았던 조선의 출판문화 형편 속에서도 책의 간행이 전국적인 분포를 지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種의 수량도 또한 적당하다. 도서 분류시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經史子集의 분류체계에서도 항상 앞쪽에 위치하여 도서 이동을 파악하는 데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 같은 經 部 문헌을 다양한 종이에 인쇄한 경우도 있어 서적의 전승을 파악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자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 가장 널리 인쇄된 경서류는 四書이고, 사서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논어』이다. 그런데 규장각도서의 연변을 찾는 데에는 『논어』보다는 『맹자』가 적절하다. 왜냐하면 『맹자』는 『논어』보다 전국적인 분포도와 종수가 좀 더 많으면서²⁾ 규장각 내에 현전하는 내용 역시 『논어』보다 좀 더 풍부하다. 다양한 판본비교-이를테면 紙質이나 地域, 板種의 차이-에 좀 더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맹자』를 그 검토 대상으로 하여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을 추적하되 지면을 고려하여 일단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의 서목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 서목에서 『맹자』 판본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전환되며 수습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규장각 도서의 형성이 관심사지만 『맹자』 판본으로 우선 그 일단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규장각 도서 전체를 수록한 『규장각도서종합목록』(한국본 1981:1994, 중국본 1982)의 『맹자』항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수록되어 있다.

韓國本: 『孟子』, 『孟子講義』, 『孟子大文』, 『孟子栗谷先生諺解』, 『孟子正音』, 『孟子集註』, 『孟子集註大全』(朝鮮本), 『孟子淺說』, 『孟子或問』, 『孟子條問』³⁾

2) 안현주, 2007 『조선시대 ‘四書’의 판본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특히 『맹자』 판본에 대해서는 우진웅, 2006 「조선시대 『맹자』류의 간행과 판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논어』 판본을 대상으로 조선의 주석서까지 검토한 연구로는 唐潤熙, 2006 『韓國現存『論語』注釋書版本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참조.

中國本: 『孟子』, 『孟子集註』, 『孟子大文』, 『孟子大全』, 『孟子師說』, 『孟子注疏』, 『孟子註疏解經』, 『孟子集注大全』(明清版), 『孟子或問』, 『增補蘇批孟子』

그런데 조선에서 간행된 『孟子大文』이나 『孟子集註大全』의 몇몇 본들은 이것 이 조선본인가 중국본인가 하는 것을 우선 명확하게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일례로 『孟子大文』(奎中1764)은 元宗字로 찍은 조선본인데, 중국본의 도서청구 번호인 奎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그 도서는 한국본 목록과 중국본 목록에 중복해서 들어가 있다. 『孟子集註大全』(奎中812) 역시 정조 때에 간행한 조선본이다. 그런데 奎中으로 분류되어 중국본에 중복 삽입되어 있다.

이는 규장각에서 간행한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1982)의 '수록범위'에 대한 설명과도 상치된다. 이 책의 범례에 포함된 '수록범위'란에는 "중국본이란 奎章閣圖書管理室에 소장되어 있는 古圖書 가운데 中國에서 發刊된 圖書를 지칭한다."라고 하여 그 발간지를 기준으로 중국본과 한국본을 구분하고 있다. 사실 규장각도서에 收藏되어 있는 상당 부분의 經書類 저작이 그 발간지가 조선임이 분명한데도 중국본인 奎中도서로 분류되어 붉은 라벨을 붙이고 있다. 이를 도서는 조선본을 의미하는 푸른 라벨로 전환되어야 하고, 청구기호도 응당 중국본을 뜻하는 '奎中'이 아닌 조선본을 뜻하는 '奎'의 양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판본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문제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맹자』 판본의 연변을 추적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기왕의 書目들 역시 이 논점과 관련하여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위에서 거론한 서적을 조선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국본으로 볼 것인지를 고민하여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규장각 도서가 형성되는 정조연간의 서목들에서부터 시대순으로 『맹자』 판본의 정리와 전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외에도 崔左海의 『孟子』나 李緯의 『孟子講說』, 李灝의 『孟子疾書』(2종) 등이 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古' 넘버로 시작되는 것이라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2. 原奎章閣 書目에서의 『맹자』 판본

규장각의 도서들은 정조가 『古今圖書集成』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홍문관과 강화부 행궁의 장서, 규장각 각신들을 통해 구입한 서적을 모아 이룩된 것이다.⁴⁾ 이 가운데 그 핵심장서를 이루는 것은 『奉謨堂奉安御書總目』(奎9838)과 『奎章總目』(奎4461)-이는 규장각 중국본 서고인 皆有窟와 閱古觀의 장서를 정리한 것인데 이후 『閱古觀書目』(K2-4654)으로 정리된다- 『書庫藏書錄』(奎7717) 등의 서고서목류와⁵⁾ 『書香閣奉安總目』(奎7924) 등이 있다. 이들 서목 가운데 『맹자』 판본이 수록된 서목과 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⁶⁾

〈표 1〉 원규장각 서목 내 중국본 『맹자』 판본

서명	연도	책명	내용	비고
閲古觀書目 (K2-4657)	1876~ 1877	孟子大全 3권	1권 7권, 1권 8권, 1권 10권	*7권본 孟子註疏解經
열고관서목 [규장각서목 (규11670)내]	1896~ 1902	孟子大全 2권	1권 10권, 1권 8권(經一欉)	8卷 改衣
		孟子集註	7권 1套(5架)	
		孟子	4卷	內下書目 3架 *孟子註疏(淸版)
		孟子問	1卷	隆文隆武 移來冊子 3架
		孟子大文	1卷	
樓上庫書目 [규장각서목 (규11706)]	1907	孟子	10卷	北1欉
		孟子	4권	北3欉
		孟子集註	7卷	北3欉
		孟子	7卷	北3欉

4) 신용하, 1981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규장각』 5; 남권희, 1983 「규장각 西庫와 그 書目분석」 『규장각』 7; 강애순, 1985 「규장각의 도서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5·6; 1990 「정조조 규장각의 도서간행에 관한 연구」 『규장각』 9 참조.

5) 서고서목류의 도서변화와 그 양상에 대해서는 남권희, 위의 논문 참조.

6) 『봉안당어서총목』과 『서향각봉안총목』에는 맹자판본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규장총목』에는 '增訂四書'와 '四書異同條辨'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는 '맹자'류 서목이 아니라 '四書類' 서적이다. 사서류까지 검토대상을 확대하면 그 종이 너무 많아 도서이동을 과악하는데 적지 않은 난점이 있어 이 검토에서는 우선 생략한다.

규장각의 중국본 유입 사정을 잘 보여주는 규장각 내 『열고관서목』의 변천을 통해 우리는 초기의 규장각에서 중국본 사정이 그리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⁷⁾ 적어도 『맹자』 판본에 있어서 그 수량은 전체적으로 빈약하다. 중국본은 맹자대전본과 맹자집주본 1~2종이 고작이다. 4권본 『맹자』는 임금이 열람한 内下書目에서 이월된 것이고, 『孟子問』과 『孟子大文』은 그나마 隆文樓와 隆武樓에서 가져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학분야에 있어서 중국본의 취약함은 조선 내 중국의 경서판본이 풍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조선의 경전해석이 주자의 集註大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상황을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도 『열고관서목』(K2-4657)에서⁸⁾ 보이는 10권본 『孟子大全』은 청대 이름난 학자 陸隴其가 手輯하고 席永恂 등이 參閱한 청대 목판본 도서인 『孟子集註大全』(奎中3276의 2)이 틀림없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때에는 支1330 21 14~23의 흰색라벨을 붙이기도 했으며, 청색奎11265~11274에 해당하는 바로 그 책이다. 그러한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정조대 중국본으로 10권본의 『맹자』는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해당 책에 정조의 입장이 찍혀있다는 사실이다. 同文之寶, 承華藏主, 弘齋, 大文章自六經來라고 하는 4종의 호화로운 印章을 찍었다는 사실에서⁹⁾ 우리는 정조가 이 책을 무척 아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후 帝室圖書로 이입되어 帝室圖書之章도 찍혀있다.

『맹자』 판본에서 8권본(奎中4114)은 조선에서 매우 귀한 것으로 明版本이다. 이후 『열고관서목』에서 이 책을 改衣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만한 사연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중국본이 수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본은 한결 풍부한 판본과 넉넉한 수량을 보여준다.

7) 그러나 이 말은 경학분야에 그렇다는 것이고, 정조대에 수입된 중국본의 수준이 낮거나 수가 적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정조 조에 구입한 중국본에 대해서는 임지영, 2008 「조선 정조조에 구입된 중국본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보』 32 참조.

8) 이 서목은 중국본을 소장한 규장각 열고관의 사목으로 개항기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본을 수록했던 西庫書目(K2-4963)과 摘文院의 서목을 수록한 摘文院書目(K2-4657)과 함께 이후 奎章閣書目(규11670)으로 이월된다.

9)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는 해당 목록의 印記에서 '大文章自六經來'라고 하는 인장정보를 생략했다. 정조의 문장에 대한 신념을 알려주는 이 중요한 입장이 생략된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보완되어야 한다.

〈표 2〉 원규장각 서목 내 조선본 『맹자』 판본

서명	연도	서명	내용	비고
西庫藏書錄 (奎7717)	1790	孟子 11건	각 7책	4件木, 1件鑄吐, 5件南, 1件南吐
		御筆孟解	8건 각7책	鑄
		孟解	6건 각7책	2件鑄, 4件木
		御筆孟子大文	1건 2책	鑄
		孟子大文	10건 각2책	9件鑄, 1件鑄吐
		孟子正音	1건 3책	鑄
西序書目籤錄	1792	孟子大全	12部 각7本	明 永樂朝諸臣
		孟子諺解	18部 각7本	
		孟子正文	11部 각2本	
		孟子正音	3본	
		奎璧孟子	7本(책)	
		孟子淺說	2本(책)	本朝 權近
西序書目草本	1795	孟子集註	6부 각4본	
		孟子大全	5부 각7본	2부 活字本, 3부 北漢木板
		孟子諺解	10부 각7본	
		孟子正文	11부 각2본	芸館活印
		孟子正音	3본	譯院刊印
		孟子淺說	2본	權近撰
西庫書目 (K4963)	1876~ 1877	孟子集註	6건 각7권 卽奎璧	
		孟子大全	7건 각7권 1件第3佚	
		孟子正文	9건 각2권	本朝芸館活印
		孟子正音	2건 각2권	譯院刊印
		孟子淺說	2권 寫本	權近撰
西庫書目 [奎章閣書目 (奎11670)내]	1896~ 1902	御筆孟子大文	2권 改衣	西西 2架
		孟子寫本	1권 改衣	*孟子抄일듯
		孟子淺說	2卷	2架
		孟子正音	2件 각3권 1건 改衣	2架
		孟子	7권 3卷佚	36架
		御筆孟解	7권 1卷佚	37架
		孟子	7권 1卷佚	37架
奎章閣樓下庫 [奎章閣書目 (奎11706)내]	1907	孟子大文	2권 5절	北8架
		孟子淺說	2卷	北8架
		孟子	7권 2절	
		孟子正音	3권	北8가
		孟子諺解	7권	不帙類
		孟子	2권	
		孟子大文	3권	

조선간행 『맹자』 판본의 흐름을 보여주는 위 西庫書目類의 『맹자』 판본의 이동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선 각 서목마다 그 전달하려는 서목의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書庫藏書錄』(奎7717)은 책의 건수와 책 수, 판본의 3종류를 매우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이는 출판이 활발하게 진행된 정조대 분위기를 반영한다. 『西序書目籤錄』은 『서고장서록』에 보관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던 장서를 四部分類로 정리하고 각 분류별 색깔을 달리하여 簿錄한 서목이다. 『서고장서록』과 비교하면 각 항목의 정리내용이 조금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책 수도 9,000책 정도가 증가하는데 『맹자』 판본에서도 이 정황이 반영되어 『奎璧孟子』와 『孟子淺說』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서서서목초본』은 기본 내용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 채 간행처나 저자 사항에 대한 서책 정보가 자상해 지는데 이는 『서고장서록』의 분위기를 일부 회복한 것이다. 서책의 종수는 개항기에 작성된 『西庫書目』(K4963)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의 서고서목은 주로 서적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서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데 주력하여 도서의 제작보다는 도서를 활용하는 시대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새로운 책의 이입은 줄고 기존의 책들은 줄어 奎章閣書目(奎11670)에 수록된 西庫書目의 경우 수장한 책을 수선하는 정황을 보여준다. 고종 이후의 서적활용은 정조대의 경우처럼 수입하여 번각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서를 비롯한 新書들을 구입하여 활용하는데 주안을 두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록되어 있는 책 가운데 『맹자』의 판본으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서고장서록』에 수록되어 있는 11건이 있다고 기록된 7책본 『맹자』의 판본이다. 서책에 대한 附記 정보를 보면 5건의 南, 1건의 南吐가 있다. 현전하는 규장각의 수많은 『맹자집주대전』 중에서 상란에 언해를 기록하고, 본문에 청색 마디를 표기하면서 역시 청색 토를 붙인 『맹자집주대전』(奎中829)은 분명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書筵에서 사용된 御覽用이다.¹⁰⁾

10)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전통시대 경연현장의 구체적인 국면을 보여주는 이러한 교재가 일반적인 집주대전본들과 같이 한 묶음의 색인으로 잡혀 목록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맹자’ 항목을 입력하면 총 98종의 도서가 목록으로 검색되는데 그 중에도 20번째 항목에 이르면 총 17종의 맹자집주대전본이 소개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묶

활자로 간행한 7책본 『御筆孟解』와 2책본 『御筆孟子大文』은 모두 元宗字로 간행한 책들이다. 원종자는 1693년(숙종 19)에 제작된 금속활자로 인조의 아버지 원종이 쓴 글자를 바탕으로 주조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도서에도 두 본이 모두 전해지는데 『孟子諺解』(규173, 규3466)는 전자이고, 『孟子大文』(규1764)은 후자이다.¹¹⁾ 1876년까지 ‘御筆’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던 册題가 실질적인 국권이 사라진 1907년 이후에는 서목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孟子正音』은 司譯院에서 간행한 것으로 『孟子』의 正文에다 한글로 중국음의 正音과 俗音을 함께 병기한 것이다. 맹자 7편(상·하 14편) 261장의 38,985자마다 하나하나 좌는 속음인 남방음을, 우는 표준어인 북방음을 표시하였다. 맹자의 경우 ‘맹’은 오른쪽에 ‘릉’ 왼쪽에 ‘ielding’을, ‘자’는 오른쪽에 ‘즈’ 왼쪽에 ‘즈 Δ’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규장각에 현전하는 『맹자정음』은 총3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맹자정음』(奎3907)은 弘齋, 承華藏主라는 印記가 있고, 編輯局保管, 學部圖書라는 所藏印이 찍혀있다. 정조가 소장했던 것으로 『서고장서록』에 수록되었던 『맹자정음』은 이 책일 가능성성이 높다. 정조의 장서인은 그러한 심증에 확신을 준다. 이 『맹자정음』은 규장각도서가 조선총독부시절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에 이관되어 관리될 때 ‘孟子類’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취급도서, 곧 귀중본으로 선정[『特別取扱圖書』(奎26774)]된 이력을 지닌 책이기도 하다.

『西序書目籤錄』에서 처음 등장하는 『孟子淺說』의 저자는 權近이 아니라 인조

음으로 처리되는 본들이 동일한 책이 아닌데도 한 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맹자집주대전』(奎中872)은 1, 2책과 3, 5책, 4, 6, 7책이 각각 다른 본들로 구성되어 한 질을 이루고 있다.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상)』에서 이들 책은 刊記가 庚辰年 (1820) 新刊內閣藏板이고, 春坊藏, 侍講院의 印記가 있으며, 欄下諺解가 첨부되어 있다고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책들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 이 묶음의 전체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목록의 해제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11) 그런데 『孟子諺解』(규173, 규3466)의 경우 목록에서 表紙書名을 ‘御筆孟子諺解’로 안내하면서도 활자를 戊申字로 잘못 지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본은 元宗字이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이 판본을 함께 설명한 『孟子諺解』(奎408) ‘해제’에는 바로 잡아 놓았으나 정작 본문의 정보는 수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바로 앞에 소개된 것과 동일한 판본인 『맹자언해』(일사고 181.1 1Y57M)의 목록상 설명 역시 매우 부정확하다.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효종 연간의 名臣인 浦渚 趙翼(1579~1655)이다.¹²⁾ 『承政院日記』 1649년 4월 1 일조에는 조익이 두 권의 책을 지어 상소한 것에 대해 인조가 치하하면서 표범 가죽으로 만든 요를 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¹³⁾ 趙翼의 연보에 따르면 조익은 1649년 3월에 예조판서에 임명되고 世子左賓客을 겸하게 되자 『孟子淺說』과 『中庸困得』을 바쳤다. 실록에 기록된 두 권의 책은 바로 『孟子淺說』과 『中庸困得』이었던 것이다.¹⁴⁾ 규장각에는 그 가운데 하나인 『孟子淺說』(奎4623)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운데 권에 해당하는 권6~권10의 내용이 빠져있다. 분명 최초는 上·中·下 3책본이었을 것인데 어느 순간 2책으로 결책된 상태로 전해진 것이다. 서목류에 최초로 등장하는 『서서서목첩록』(1792년 편성)에 수록될 때부터 이 책은 이미 2책이었다. 中卷을 잃어버린 2책본 『맹자천설』은 약방의 감초처럼 꾸준히 전해져 帝室圖書之章을 받고 현재까지 이어졌다. 여러 정황상 이 책은 조익이 인조에게 바친 그 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短帙 이므로 적어도 정조 시대를 지내온 그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3. 규장각 주변 궁궐 각사서목의 『맹자』 판본

궁중의 각사와 이 각사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자세한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¹⁵⁾

12) 이러한 정황은 서목의 기록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서목의 작성자는 서적 정보에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서적을 관리하는 행정관료가 했을 수 있다.

13) 『承政院日記』仁祖 27年(1649) 4月1日 己丑 “答禮曹判書趙翼疏曰，觀卿上疏，深用嘉尚，所進兩書，無非卿積年辛勤咀嚼所得，可謂有益之文也。疏末所陳，予當用副卿意焉。仍傳曰，今下阿多介一坐，判書趙翼賜給，勿謝。”

14) 『浦渚年譜』(奎3130)는 尹拯이 작성한 것이다. 이 논고에서는 우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김경희 선생이 연보 등을 토대로 작성한 포저의 행력기사를 활용했다.

15) 옥영정, 1996 「이문원의 장서와 서목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12; 옥영정, 1999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이종묵, 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수장에 대하여」 『서지학보』 26; 풍지혜, 2013 「정

〈표 3〉 궁궐각사 서목 내 『맹자』 판본

서 목	연 대	서 명	내 용	비 고
寶文閣冊目錄(奎11617)	1809	孟子	3권 각7책	
		孟子諺解	7권	
		孟子大文	1권	
摘文院書目 [奎章閣書目(奎11670)]	1896~1902	孟子大全	4권 奎璧	
大畜觀書目(奎11702)	1801~1828	孟子正音	3책	
		孟子	4절 각7책	
		孟子諺解	2절 각7책	
		孟子	3책 1책落	
承華樓書目(奎9875)	1835~1863	孟子	2절 각7책	
		孟子奎璧	3책	
緝敬堂曝曬目錄(奎11704)	1882 이후	蘇批孟子	2절 2本	
		孟子師說	2本	
隆文樓書目(奎11709)	1905	孟子大文	1권 腐傷	제3架
		孟子講義	2권	제3架
		孟子問	1권	제3架
		孟子大全	7권	제8架
芸閣冊都錄(奎11707)	1817	孟子	11권	
		解	11권	13經註疏 9件
		孟子	7권	
		孟子	30권	
		孟子諺解	38板	
弘文館冊目錄(K2-4673)	1906	孟子	12절 각7책	樓上 東3卓
		諺解	2절 각7책	
		孟子或問	1절 2책	樓下 東3卓
		孟子正音	1절 3책	樓下 西卓
弘文館書目(奎11711)	1908	*	*	1908년 9월 10일 ~16일 포쇄기록

조대 궁중 서적 보관처와 서적관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궁궐 각사에 소장되어 있던 『맹자』 판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¹⁶⁾ 다만 각 관서의 특징에 걸맞게 内閣에는 맹자언해의 판본이 넉넉하게 있고, 고종의 집무실과 가까웠던 집경당에는 제법 세련된 중국본들이 있다는 정도가 주목을 끈다.

『집경당포쇄목록』은 경복궁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적의 포쇄목록이다. 집경당은 1868년 경복궁 중건 이후에 건립된 건물로 왕이 궁내에서 한가히 거처하던 燕寢의 옆에 위치하여 内部라고도 하였다. 고종이内外 신료를 접견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2만여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역대 금석문 및 명청대 서화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당대 왕가의 서재로 그 위상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여기에 소장되었던 蘇洵이 批點을 찍어 붉은 색으로 칼라인쇄를 한 『蘇批孟子』는 1865년에 발간된 芸居樓藏板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면모를 보인다. 황종희의 『맹자사설』은 1882년에 발간된 청본으로 王梅生이 校刊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경당포쇄목록』은 적어도 1882년보다는 늦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종대의 서적 수집에서 중국본을 거의 동시대적으로 구입하는 면모를 볼 수 있다. 기실 규장각에는 당대 저명한 목록학 공구서인 장지동의 『書目答問』(규중4030)을 비롯하여 『武英展袖珍版書目』(규중2954) 등 중국본들의 구입을 위해 참고했음직한 목록들이 존재한다. 도서구입을 위해 도서목록을 참고하려는 성의를 가졌다면 이 정도의 시간대를 두고 중국 최신 서적이 수입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¹⁸⁾ 덕분에 우리 규장각에는 集玉齋와 帝室圖書之章이 찍

16) 『용문루서목』에 있는 『孟子講義』와 『孟子問』은 정조의 맹자강의 노트이다.

17) 집경당의 건축규봉과 서화수장에 대해서는 이종복, 2002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수장에 대하여」 『서지학보』 26: 흥대영 편,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 기문당; 황정연, 2005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32 참조.

18) 당시 고종이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內下冊子目錄』(K2-4960)에는 600여종의 도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다수가 서양관련 서적이었다. 이에 대한 정보와 집옥재 서적과의 관련양상은 이태진, 1996 「규장각 중국본 도서와 집옥재도서」 『민족문화논총』 16: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12 「집옥재서목」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실상과 활

한 『孟子師說』(규중5356)이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2권 단질이지만 이 후 『맹자사설』은 『맹자천설』 만큼이나 적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본 규장각도서를 빛나게 한다.

궁월의 각사 가운데 규장각도서의 형성에 빼놓을 수 없는 관사는 바로 세자侍講院이다. 그 시강원의 도서를 수록해 놓은 것이 바로 『춘방장서총목』(규11671)이다.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장 시강원에서는 가장 널리 강학교재로 활용되었던 대전본 맹자와 언해를 30권 이상 소장하고 있었다.

〈표 4〉 『춘방장서총목』 내 『맹자』 판본

서명	연도	서명	내용	비고
春坊藏書總目 (奎11671)/ 春坊藏書總目 (K2-4669) (複寫本)	1907	孟子大全	26절 각7책 40冊 改衣	經書類 新件
		諺解	29절 각7책	
		孟子大全	4절 각7책 24冊 改衣	
		孟子大全	20절 각7책	
		孟子大全	2절 각7책	經書類 舊件
			2절 각4책	
		諺解	2절 각7책	
		孟子或問	1절 2책	
		孟子	7책 漢 趙岐 注, 宋 孫奭 疏	
		孟子	2절 각7책	內下別峙
		諺解	2절 각7책	
		孟子具解	1절 14책 具匣	
		孟子大全	3절 각7책 4권落 1절 제1,2책 落 2절 제1책 落	落帙類

규장각에 소장된 맹자집주대전본의 상당수에 ‘侍講院’이나 ‘春坊藏’이라는 소장인이 찍혀있는데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규장각에 남아있는 『맹자』 판본의 상당부분은 세자시강원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는 다른 경서류 저작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갈한 글씨로 언해를 붙이고, 朱墨

용」 『한국근현대사연구』 61 참조.

이나 黑墨으로 懸吐한 서적이 유난히 많았던 것은 그 책들이 실질적인 강학용 교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규장각에 소장된 강학용 교수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남긴다. 100여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문언해를 위한 협토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모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만하고, 책마다 달라지는 협토의 글씨체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경연이나 서연에 참여하는 신분에 따라 책의 상태가 다른 것인지, 청색과 적색, 흑색의 협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 다양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紙質의 차이도 상당하므로 실제 동일한 판본에 적용한 다양한 지질의 분포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동일한 종의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비교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4. 고종대 集玉齋의 『맹자』 판본

정조대에서 고종대로 전환되면서 규장각 도서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역시 집옥재서적목록이다. 집옥재는 고종의 개인서재로서 조선에서 가장 최신의 서양서적들이 진장된 조선 문화의 최첨단이었다. 그 서목에 수록된 맹자판본을 검토하는 것은 조선 왕실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이다. 우선 『집옥재서적목록』(규11676)을 검토한다.

〈표 5〉 『집옥재서적목록』 내 『맹자』 판본

서명	연도	서명	내용	비고
『집옥재서적목록』(규11676)	1908	孟子師說	2권	
		蘇批孟子	2권	
		孟子文櫬	2권	
		孟子講義	1권	
		孟子	9帖	

『孟子文櫬』(규중6442)는 청대 석판본으로 2책 본인데 광서 14년 1888년에 鴻

寶齋에서 출간된 것이다. 그 서적의 성격은 총집적인 것으로 주로 과거의 과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요긴하다. 9첩짜리 『맹자』는 일반적인 도서가 아니라 첨의 형태로 전해진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장첩되었고 본문은 맹자의 원문을 탁본한 것인데 탁본의 상태가 매우 정교하다. 그 때문인지 이 9첩짜리 『맹자』도 일제 강점기로 넘어갈 때에 귀중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귀중도서 목록(古016.09-G995)].

다른 서목에 비추어 집옥재서목은 과연 일찍이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최신의 서적을 유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폭은 넓지 않고, 서적의 수준 역시 문예적인 방향으로 경도되어 정조대 수입서목의 중후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집옥재서목은 이후 조선 최대의 도서관 목록이 된 帝室圖書의 근간을 형성했다.

5. 史庫의 『맹자』 판본

〈표 6〉 오대산 · 태백산 史庫의 『맹자』 판본

서명	연도	서명	내용	비고
五臺山史庫藏書目錄 (奎26735)	1914~1915	孟子	7권	
		孟子	7권	
		孟子	7권	
		孟子諺解	4권	
		孟子諺解	7권	
		孟子諺解	7권	
		孟子具解	14권	
五臺山史庫圖書目錄 (奎26736)	1914~1915	孟子	7권	史間階下 第26櫃
		孟子諺解	14권	史間階下 第33櫃
		孟子	14권	
		孟解	2부 14권	
五臺山藏書目錄(奎26737)	1914~1915	孟子諺解	4권	
		孟子諺解	7권	
		孟子諺解	7권	
		孟子	7권	
		孟子	7권	
		孟子具解	14권	

		孟子	7권	
太白山史庫圖書目錄 (奎26738)	1914~1915	孟子集注大全	2부 각7권	
		孟子	1부 7권	
		孟子諺解	3부 각7권	
		孟子諺解	1부 7권	
太白山藏書目錄 (奎26739)	1914~1915	孟子	2절 14권	
		孟子諺解	21권	
太白山史庫藏書目錄 (奎26741)	1914~1915	孟子	2절 14권	
		孟子諺解	21권	

史庫의 맹자판본은 맹자집주대전본과 언해본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¹⁹⁾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서목에 있는 도서의 정리 및 서목의 형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오대산사고의 목록은 朝鮮總督府가 강원도 평창군 五臺山史庫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들의 이름과 수량을 정리한 目錄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동일한 용지에 동일한 편체로 작성된 『五臺山史庫圖書目錄』(규26736), 『五臺山藏書目錄』(奎26737), 『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26735)가 있다. 전자는 그 기록 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현장에서 서가를 확인하고 작성한 반면 후자들은 일본어 음순에 배치되어 있는데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26735)가 가장 완전한 일본어 음순을 보인다. 그렇다면 소장 도서를 실사하고, 음순정리를 위해 음순에 따라 분류배치 원고를 만든 다음, 정확하게 최종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짐작된다.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 강점 직전에 규장각·홍문관 등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들을 宮內府로 이관한 뒤 1911년 6월 朝鮮總督府 取調局에서 이를 강제로 인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太白山 奉化史庫, 五臺山 平昌史庫, 赤裳山 茂朱史庫 등의 도서들도 점유하였다. 이후 일제는 취조국의 주도로 점유 도서들의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조국이 폐지된 1912년 4월부터는 도서 정리 작업을 總督府 參事官分室로 이관하여 계속하였다. 참사관분실에는 총 7개의 서고가 있었는데, 1·2·4·5·6庫 및 別庫에는 조선본 도서들이, 3·4庫에는 중국본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참사관분실에서는 소장 도서들을 『四庫全書』의 방식에 따

19) ‘具解’라고 기록된 것은 맹자 원전과 언해가 한 세트로 있다는 것이다.

라 經·史·子·集으로 분류한 다음 각 書架별로 도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도서관 설치와 열람에 대비하여 도서 카드를 작성하면서 도서 명의 머리글자를 일본어의 47音順으로 배열하여 카드 번호를 부여했다.²⁰⁾

오대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맹자』 판본 역시 이러한 도서정리의 과정에 따라 각 서목들에 위와 같이 정리된 것이다. 그 결과 『五臺山藏書目錄』(奎26737)과 『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26735)은 일본어 음순정리에 따른 위치의 변동만 있을 뿐 도서의 수록서목의 이동은 없다. 실제현장에서 조사한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26736)과는 『맹자언해』 낙질본 4권이 틸락했을 뿐이다.



〈그림 3〉 五臺山史庫圖書目錄
(奎26735)



〈그림 4〉 五臺山藏書目錄
(奎26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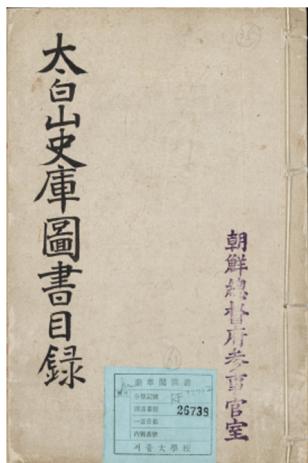


〈그림 5〉 五臺山史庫藏書目錄
(奎26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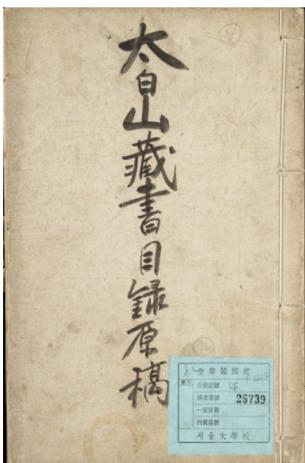
이는 대체로 같은 도서정리의 과정을 거친 태백산사고의 도서정리 과정과도 유사하다. 다른 사고와 달리 태백산사고의 수록도서는 四庫分類로 도서를 정리하면서도 선원록, 실록 및 다양한 문집, 관찬서 등의 도서가 잘 구비되어 있고, 그 목록 또한 매우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오대산사고가 의궤라고만 하여 어떠한 의궤인지 불분명하게 해 놓은 것과 달리 태백산사고는 각 의궤별 내용이 자세하여 史庫의 서목 가운데는 가장 충실한 면모를 보여준다.

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1999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 史部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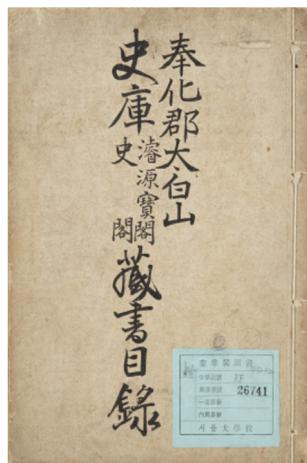
각 서목별로 보면 사고분류로 작성된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이 정리 점검 목록으로서 원목록이고, 『太白山藏書目』(奎26739)과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은 47음의 일본어음순으로 정리한 분류목록이다.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이 가장 정비된 형태를 보여준다. 도서 수량을 비교해보면 『맹자언해』 7권 한질이 털락한 것 외에는 그대로 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



〈그림 7〉
太白山藏書目錄(奎26739)



〈그림 8〉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

御 智 厚 子 解 補 解 子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春 神 微 心 四 懷 五 持 學 四 輝 廣 類 合 類 註 儀 義 傳	春 於 太 持 學 四 廣 類 註 儀 義 傳
一一一 六 七 八 九 十 十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 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六 七 八 九 十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그림 9〉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그림 10〉
太白山藏書目錄(奎26739)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孟 子 集 譜 大 金 移 集 編 題 註 儀 義 傳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一一一

〈그림 11〉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

살펴본 바와 같이 史庫圖書의 경우 『맹자』 판본은 그 종수나 수량이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종의 도서를 검토할 경우 그 도서를 정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남는 문제

서목을 통한 규장각 도서의 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도할 만한 것인가? 검토를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얻을 수 있겠다. 경서류 도서로서 일반적인 서목에 두루 등장하는 『맹자』 판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규장각 도서의 흐름을 일별할 수 있는 구체적 일면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서목을 통한 규장각도서의 형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좀 더 다양한 판본을 표집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경서류 판본의 경우 규장각의 소장 도서는 외부로부터의 이입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왕가의 서적이라는 권위와 다양한 보관대책으로 인해 쉽게 이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강력한 분산작용이 없다면 대체로 그 면모를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 판본 뿐이 아니라 다른 경서류 판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더 확실한 서적의 흐름과 그 계통을 알게 될 것이다.²¹⁾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충격을 배제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전쟁이나 그에 버금가는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도서의 관리와 활용에는 또 상당한 파란이 있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전개된 일제 강점기 하의 규장각도서의 운명은 바로 전쟁에 버금가는 급격한 것이었다.²²⁾

대개의 서목의 이동을 살펴보면 경서류 저작의 경우 일제 강점기 시기에 새로

21)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학학회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 센터의 지원을 받아 규장각소장 경서류 판본에 대한 문헌검토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매우 기다려진다.

22)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연구보고 된 민희수, 2015 「일제강점기 규장각 書目의 ‘記錄類’ 형성 과정」(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5년 3월 19일 발표)은 그 일단을 밝힌 것이다.

운 도서의 유입은 약간의 일본 서적 외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그보다는 오히려 도서의 활용에 주목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색인을 잡아 활용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문제는 그 방향이나 정리방법이 체계적이지도, 또 우리에게 편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 이후의 규장각 도서의 정리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논한다.

주제어 : 규장각, 도서형성, 경서류 서적, 『맹자』 판본, 정조, 집옥재, 史庫圖書

투고일(2015. 5. 13), 심사시작일(2015. 5. 26), 심사완료일(2015. 6. 12)

〈Abstract〉

The Study on 『Mengzi』 editions housed in Kyujanggak(奎章閣)
 – Focusing on succession in the list of books from King Jeongjo(正祖)
 to King Kojong(高宗) era –

Ham Young Dae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bibliotheca in Kyujanggak(奎章閣) tracking down editions of 『Mengzi』 in the list of books in Kyujanggak during the period from King Jeongjo(正祖) to King Kojong(高宗) era

The book lists of Wongyujanggak, several libraries around Kyujanggak, Jipokjae(集玉齋) and Sago(史庫) in King Kojong era were examined to track down variation and succession of 『Mengzi』 editions in the list of books in Kyujanggak.

As a result, the 『Mengzi』 edition, which is often listed in normal book lists as a Confucian classic, is found to be a major method to understand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yujanggak bibliotheca. While different information of the editions was reflected according to each era and location, the editions themselves were succeeded continuously without much loss. Therefore, the attempt to examine the formation of Kyujanggak books through book lists deserves to continue sampling more various editions.

Since Kyujanggak has less inflow of books and proper storage measures with authority of king's library, the editions of 『Mengzi』 are not much separated. Without outside pressure to disperse the books, they could maintain their appearance. Examining other editions of Confucian classics would support this point positively.

Few editions of Confucian classics have been added to book lists ever since Japanese colonial era. It is estimated that organizing and utilizing were more focused at this time. This point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study.

Key Words : Kyujanggak(奎章閣), formation of bibliotheca, bibliotheca of Confucian classics, 『Mengzi』 edition, King Jeongjo(正祖), Jipokjae(集玉齋), Sagodoseo(史庫圖書)

* Senior researcher,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